

프시케 Story
창간 배경

심리학과, 귀를 기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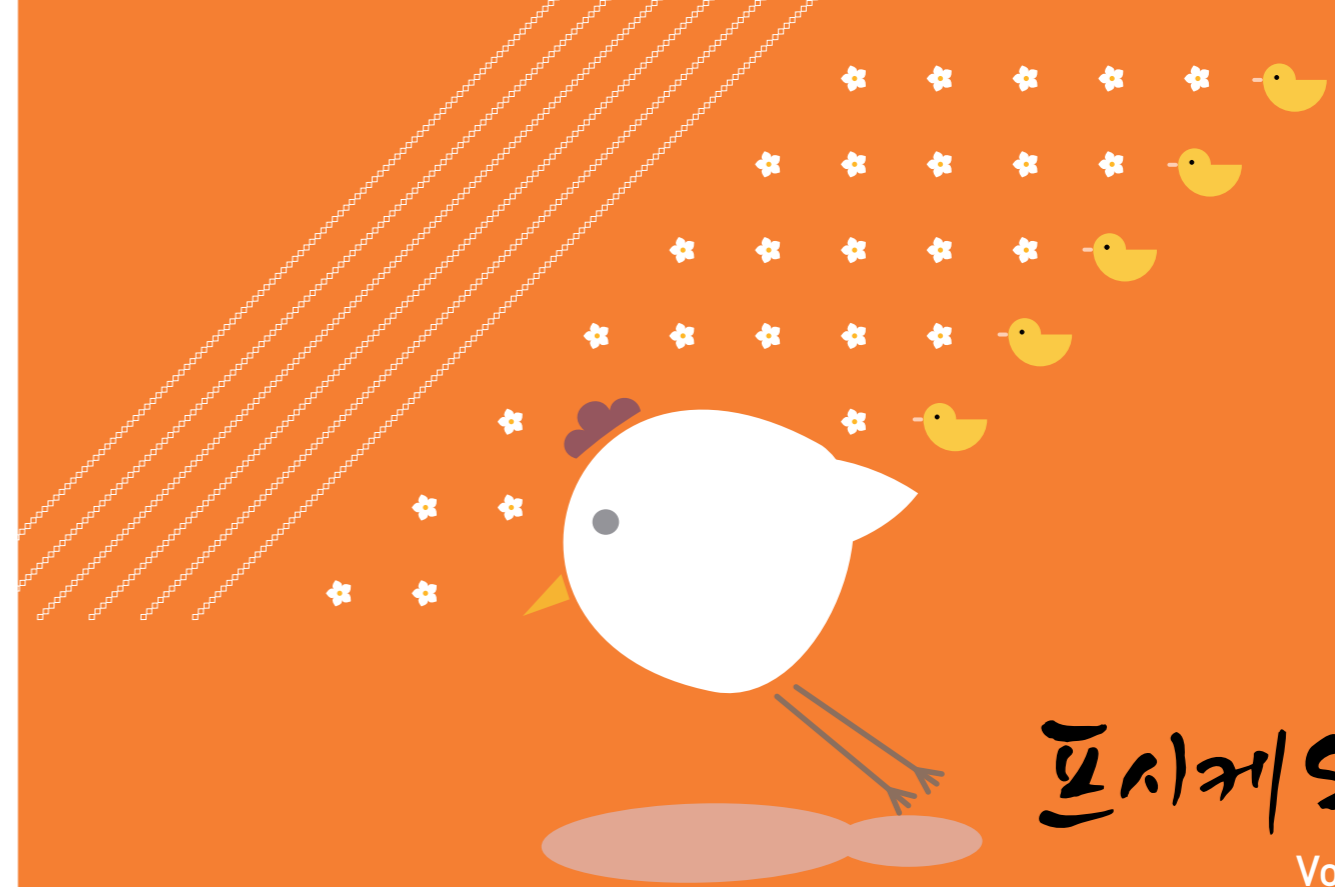
2012년 10월.
심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 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3~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제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현 심리학과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

발전, 소통(疏通)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과내 소식지 (프시케 스토리) 발간을 제안한 '프시케 스토리'팀 (황제욱.07, 정지연.10, 황해지.10)이 대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심리학과 내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내 소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시케 스토리'는 동기들, 선후배 뿐 만 아니라 교수님, 대학원-학부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프시케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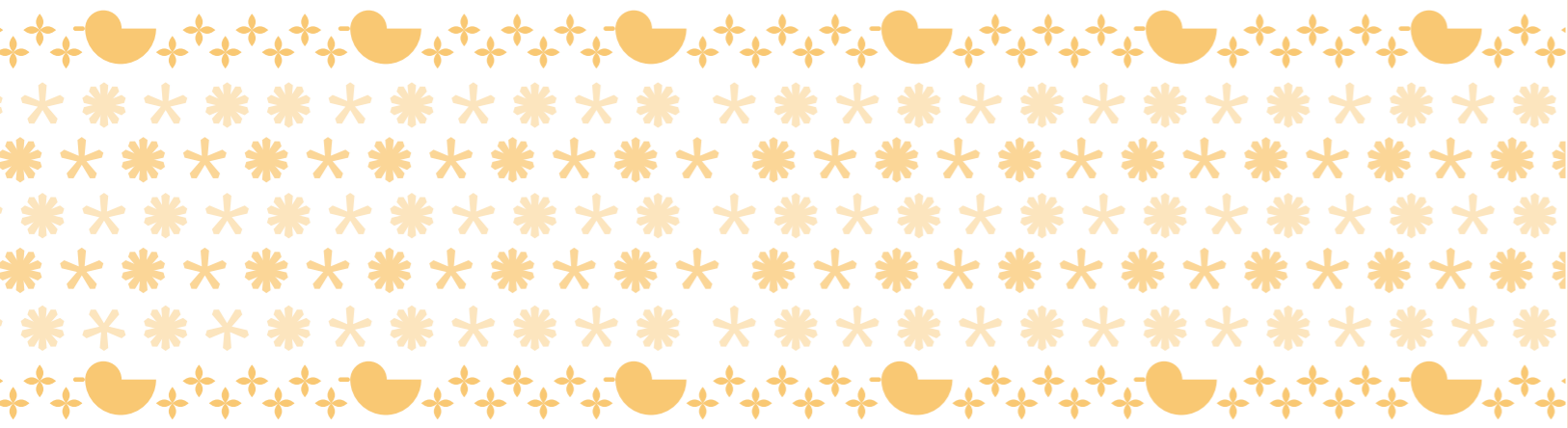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 (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으로, 갓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을 의미한다. 프시케 스토리에는 학과 행사, 취업관련 정보, 수업 정보, 공지 사항은 물론 교수님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Contents로 구성하여 학과 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리학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프시케 Story
Vol. 08

CONTENTS

- 04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여덟번째
- 06 안심밖심(안에서 보는 심리 밖에서 보는 심리)
- 08 응용인지 심리학 너무 어려울 것만 같다고?
- 10 경심부심! 메말랐던 연합학술교류전의 가능성을 열다
- 12 모자와 장갑 뒤에 숨지 마세요! 발모광과 손톱물어뜯기
- 14 Healing의 심리학 여덟번째 이야기
- 16 마음을 위한 보약 집단 상담
- 18 새로운 회장단을 만나보자 OLD&NEW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여덟 번째

6월 27일 ~ 7월 4일 여름 농활

심리학과 여름 농활로 노상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마을들에 비해 고령의 어른들이 계신 마을이고, 농사를 몇 가구 짓지 않아서 일손을 도우러 갔다가 재롱을 부리고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고 몸 건강히 전원 복귀하였습니다.

9월 1일 개강 총회

2016년의 2학기 개강 총회를 열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있었던 농활 영상을 나누어보고, 학생회비 결산안과 예산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방학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다 함께 뒤풀이를 가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5일 심리학과 대의원 총회

각 학번 대표와 동아리 회장, 학생회 부서 부장들이 참가해서 대의원총회를 열어 심리학과 학생회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회칙은 과방에 게시해두었습니다. 회칙이 필요하시거나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학생회장에게 요청하시면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제2회 안심박심 1탄 '학교생활 편'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행사를 올해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안심박심 1탄 '학교생활 편'에서는 10학번 박도원(워킹홀리데이), 13학번 김예원(여행), 13학번 정진경(교환학생), 13학번 장세영(교직이수), 14학번 김은해(대외활동)께서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또한, 40여명 정도의 심리학과 친구들이 참여해서 2시간 반 정도의 강연이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11월 2일 전국 사회과학도 합동 시국선언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제안한 전국 사회과학도 합동 시국선언에 대해 공고하고 그에 따라 긴급 단대운영 위원회의를 진행하여 부산대학교 사회대학교 안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할 학우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저희 심리학과도 자체적인 의견 수렴의 결과 다수의 학생들의 동의로 전국 사회과학도 합동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국에 대해서 심리학과를 포함하여 약 50여 명의 학우 분들이 시국선언을 위해 서울로 다녀왔습니다.



11월 7일 문창체전

이번 문창체전의 본 행사는 우천과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취소되고 그 전까지 진행된 축구와 농구 경기만 진행하였는데, 저희 학과의 농구동아리 스웨이드가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행정학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졌는데요,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한 스웨이드분들 축하합니다!

11월 12일 제1회 부산대-경북대 학술 교류전 <경심부심>

이번에는 학과 내의 학술제 대신에 경북대와의 학술 교류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심부심은 경북대에서 26명의 부산대 심리학과 학생들과 20여명의 경북대 학생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즐겁게 교류하고, 많은 것을 배워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확인하세요!

11월 16일 ACE 학과 현장실습 및 취업박람회 참가

학과 내에서 선착순으로 50명의 심리학과 학생들과 함께 학과 현장실습 및 취업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방문하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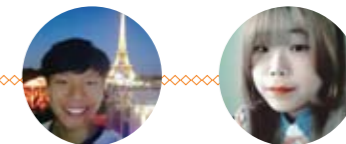


11월 25일 금요일 안심박심 2탄 취업편

'시국만큼 노답미래, 우리 함께 고민하자'라는 주제로 북문 커피브라운에서 선배님들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연사로는 공기업 시즈오카 철도 김성훈 선배, NC SOFT 이현규 선배, 카페 커피브라운 박영우 선배, 재미난 복수 김건우 선배님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확인하세요!

12월 1일 차기 학생회장단 선출

이틀 동안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투표를 해주신 결과 12학번 강지환, 15학번 윤기희, 이 두 후보가 내년 심리학과를 이끌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발전하는 심리학과, 즐거운 심리학과 부탁드립니다!!



INTERVIEW

16학번 박아영

빼약효과는 제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기에 힘들었지만 정은주 회장님과 최숙정 부회장님 덕분에 수월하게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빼약효과로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내적 성장을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 1년 동안 행사를 진행한다고 고생하신 회장,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학번 김한기

모든 행사가 오랜 준비기간과 세심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무대 위의 모습만 눈에 보였다면, 지난 1년 동안 빼약효과에서 일하면서 무대 뒤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심박심:

안에서 보는 심리! 밖에서 보는 심리!

지난 9월 29일과 11월 25일, 오랜만의 심리학과 안심박심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열린 제 2회 안심박심은 무려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아주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안심박심은 1, 2탄으로 나누어 야심차게 진행되었는데요, 1탄인 '학교 생활편'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고, 저는 2탄 '취업편'의 현장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양현보 기자_home6759@naver.com



안심박심?	이번엔 취업이다!
<p>'안심박심'이란 재학 중 혹은 졸업하신 심리학과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대외활동,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먼저 준비하고 경험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후배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로, 지난 2013년 함영은 회장님의 주도로 첫 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쉽게도 선배님들을 초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명맥을 이어 오지 못하다, 드디어 올해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제 2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p>	<p>원래 안심박심은 학교 안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자리였지만, 참석자 분들의 열렬한 성원과 함께, 좀 더 나아가 취업에 대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목소리에 부응하여 올해는 특별히 안심박심 제 2탄 취업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업편인 만큼 이번에는 취업에 성공하여 곧 입사를 기다리고 계신 선배님부터, 벌써 그 자리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으신 선배님까지 다양한 업종과 위치의 선배님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p>

09학번 김성훈 선배님 일본 시즈오카 지역 굴지의 대기업에 한국인 최초로 입사가 확정되신 선배님입니다. 대학 생활 중 교환 학생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이란 옳은 것이라 생각한 것이 옳지 않음을 깨달아가며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셨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6학번 이현규 선배님 국내 최대 게임회사로 유명한 엔씨소프트에 근무하시는 선배님으로 심리학과만의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심리학과는 정량적 통계에서 해석을 통해 정성적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에서 다른 학과 출신에게는 없는 강점을 가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통계 공부 열심히 해요!

07학번 박영우 선배님 이번 안심박심 취업편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카페 커피브라운의 사장님이십니다. 스스로 취업을 앞두고 고민하신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며, 취업 전에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는 것이 기나긴 인생에 있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문 코앞이니 커피는 여기서 마시면 되겠어요!

02학번 김건우 선배님 문화기획 전문 '재미난 복수'의 대표를 맡으신 선배님입니다.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스스로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던 말씀, 그리고 거대한 세상의 벽에 틈을 내는 것이 예술 문화의 역할이라는 말씀 등, 삶과 문화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 소감 한마디

이번 안심박심 행사를 통해 오랫동안 뵈지 못했거나 처음 뵈는 선배님들을 만나 반가운 시간이었고 꼭 취업에 관한 정보들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하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지환, 12학번)

네 분의 멋진 선배들의 강연을 들으며 느낀 점은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스스로 아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대학생활을 하며 내가 쌓아야 할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강연을 들을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선배님들과 학생회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서현지, 14학번)

학부는 물론이고 석사 학위를 얻어도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가 여전히 힘들다는 점을 새삼 느꼈지만, 그래도 심리학에도 취업을 준비하는데 활용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기업에 취직하신 선배님들을 더 많이 뵈고 싶습니다. (류 모씨, 16학번)

응용인지심리학, 너무 어려울 것만 같다고??

심리학을 사랑하는 우리 심리학도 여러분,

혹시 너무나도 궁금해 알아보고 싶었던

주제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응용인지 수업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3학년 1학기에는 학생들에게 희로애락을 선사하는 '연구방법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이지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방법론과 응용인지는 비슷한 측면이 많은 수업입니다. 각자 주제를 정한 후, 이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연구방법론은 조별로, 응용인지 수업은 개별로 연구나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수강하는 연구방법론과 달리 응용인지 수강생은 15명이 채 되지 않는답니다. 올해는 10명의 학생이 이 수업을 수강하고 있어요.

응용인지 심리학은 김비아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으로 3, 4학년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선수 과목인 인지심리학을 들어야 수강할 수 있으며 개인 발표가 주를 이루는 수업이다 보니 학생 수가 적은 것이 특징이지요. 연구방법론 수업은 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신이 제시한 연구 주제가 발탁되지 않아 아쉬운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응용인지를 수강한다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적은 수의 학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견의 표출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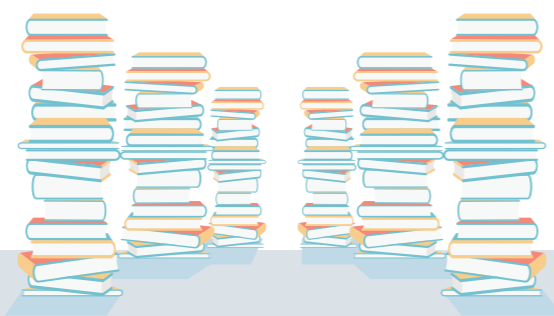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한 후, 40분에서 50분가량의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험이나 조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직접 수행해 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겠지요. 발표가 끝나면 다른 학생들과 교수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4~50분 정도의 발표 후 질문을 받는다던 거 의 한 수업 내내 한 학생이 수업을 이끌어어나가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꼼꼼한 준비는 필수!

이번 학기에는 성차별이나 미루기 전략 등과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문제들부터 심리학도가 잘 다루지 않는 수화나 정치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아마 우리 부산대 심리학과 학생들이 4년을 헛되이 보내진 않았나 봅니다. 예상치 못했던 날카로운 질문, 핵심을 간파하는 질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발표자는 긴장을 늦추선 안 된답니다.

발표 및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발표자에 대한 피드백이 이어집니다. 발표 중 아쉬웠던 부분과 좋았던 부분을 모두 들을 수 있으니 자신의 발표를 되돌아볼 기회가 되겠지요?

40분이 넘는 발표 시간에 질문 세례까지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요? 막상 수업을 듣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손을 번쩍번쩍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심리학도로서 쌓아온 지식을 맘껏 뽐내보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응용인지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응용인지 수업을 더 자세히 파헤쳐보기 위해 이번 학기 수강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응용인지 심리학을 수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혼자 하는 연구방법론' 수업이라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수님의 상세한 OT를 듣고, 심리학과 커리큘럼 내에서 응용인지심리학만큼 자유롭게 관심 분야를 연구 및 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업은 드물며 이것이 제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13학번 김수아)

“응용인지심리학 수업의 어떤 측면이 좋았나요?”

응용인지심리 수업에서는 연구방법론 수업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개인적인 관심에 충실한 주제로 발표할 수 있어요. 엄격한 실험을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어서 평소 잘 관찰할 수 있지만, 실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심리학적인 변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관심이 없었거나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학부생이 온전히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50분에 달하는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흔치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주어진 50분 동안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변인을 통해 풍부한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4학년이었고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나 미흡했던 적, 개인적인 경험 등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4년 동안 배운 전공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심리학과 학생이라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13학번 오현지)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나요?”

제 발표 주제가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다소 어두운 측면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감정표현 불능증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 기억에 남네요. 또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정서 조절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던 질문도 기억에 남습니다. (13학번 권소영)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TIP이 있나요?”

연구방법론 수업을 잘하셨다면 응용인지 수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던 사회적 현상이나, 사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면 주제를 정할 때 좋아요. 저는 주제를 정하는 게 수업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6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해 내거나, 원래 생각하고 있었다면 수월하게 응용인지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을 할당받아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준비를 해야 해요. 제가 다른 분들 수업시간 한 시간 책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발표할 때는 떨릴 수 있지만, 주제 잘 정하고 수업 잘 들으면 나머지 시간은 즐겁게 보내면 됩니다^^!! (13학번 김예원)

이상으로 학생들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에 협조해 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제 메일로 연락해주세요~

경심부심! 메말랐던 연합학술교류전의 가능성 열다

이번 학기 11월 12일, 경북대와 부산대 심리학의 연합학술교류전이 열렸습니다. 오래 전에 끊겼던 학술 교류를 다시 되살린 기획였던 만큼, 준비과정과 행사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번 프시케 스토리를 통해 경심부심의 시작에서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숙정 기자_appletree411@naver.com



경심부심, 그 시작은?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경북대학교의 제안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여러 학교들과 학술 교류전을 열었던 경험이 있었던 경북대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학문을 탐구하는 자리가 점점 뒤풀이와 술자리를 위한 자리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경북대는 학술교류전의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부산대와 함께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 목적을 잃고 형식에만 치중되기 쉽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경북대와 부산대 심리학과는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술교류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이 학술교류전은 누구를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할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학술교류전

거듭된 고민과 토론의 결과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술교류전은 교수님도, 두 학교의 이름도 아닌, 바로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의 지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경쟁하고 평가받는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협동하고 재미난 놀이를 통해서 개개인의 생각을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이 더 쏟아져 나오고, 학교수업 밖에서 얻을 수 있는 색다른 통찰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심리학의 위상이 부풀려진 현재, 모두가 '맞아'라고 하는 데에 의문을 던져보고, 심리학과 학생으로서 던질 수 있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학술발표 와 게임, 그리고 영화 (덤으로 치킨과 맥주)

행사 날 아침, 가을소풍을 떠나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부산대 심리학과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경북대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 버스에는 이동훈 교수님, 김비아 교수님, 최원범 조교선생님까지 계셨습니다~) 부산대와 달리 평지인 경북대 캠퍼스는 하나의 커다란 공원 같았고,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1부는 경북대와 부산대에서 각각 4팀, 1팀이 준비한 학술연구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1팀 경북대 대학생의 완벽주의의 성향과 우울, 삶의 질,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 2팀 경북대 미디어와 사이코패스
- 3팀 부산대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청년 자녀의 심리적 독립의 관계 -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4팀 경북대 소비자의 자기제시 동기수준에 따른 구매의사 - 콜라보레이션과 브랜드 성격의 가시화를 중심으로
- 5팀 경북대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기존에 열리던 학술발표 때는 교수님들께서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것과 달리, 이번 교류전은 학생들이 스스로 보충할 부분을 찾아내고,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참가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가 '교수님의 평가'라는 것 때문에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부산대학교 팀은 특히 수준 높은 치밀한 연구절차와 통계자료 분석을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년에 상관없이 다양한 소모임이 있고, 그 속에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경북대 심리학과를 보면서 부산대 심리학과 학생들은 많은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점심을 먹고, 게임을 하였습니다. 경북대 학생과 부산대 학생이 적절히 섞여 5-6명이 한 팀이 되어 '몸으로 말해요'를 진행했죠. 특히 프로이트, 강박장애, 무기력 등 심리학과 관련된 개념을 몸으로 표현하는 데, 같은 조원들이 공공대며 알아 맞춰야했던 것이 재밌었던 기억에 남습니다. 게임을 통해 좀 더 각 학교 학생들 간에 서먹서먹했던 벽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영화로 보는 심리학'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심리학적 지식으로 분석해보며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영화라는 매체를 선택한 이유는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영화 안의 세계는 하나의 살아있는 '삶'이기에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술교류



전의 영화는 감정이 통제된 미래의 한 사회 속에서 그려진 남녀의 사랑을 그린 <이퀄스 Equals>이었습니다. 이번 조별 토론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분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론의 결과물을 마인드맵으로 나타냄으로써 각 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뒤풀이! 맛있는 치킨과 맥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을 기약하는 법! 내년에는 부산대에서 열리는 '부심 경심'을 열기로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올해를 계기로 연합학술제를 통해 참여 학교 모두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심리학 학문에 대한 애정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만나요~!!^_^

모자와 장갑 뒤에 숨지 마세요!

발모광 Trichotillomania 손톱물어뜯기 Onychophagia

혹시 공부를 하거나 TV를 시청하며 무심코 머리카락을 베베 꼬고, 만지작거리거나 뽑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머리카락 외에 눈썹이나 다른 체모를 뽑는 행동은요? 사실 스스로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적인 행동으로 탈모가 생기고,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좋지 않거나 하여 고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의학적, 정신과적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모광(拔毛狂, Trichotillomania)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심리학회(APA)에서 집필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SM-5)에서는 '강박 및 관련 장애'에 강박장애, 신체이형장애, 수집광, 발모광, 피부뜯기장애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DSM-5에서 말하는 강박장애는 강박적 사고 그리고/또는 강박 행동으로 특징지어지는데, 강박 사고는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지속적인 사고, 충동, 심상들로 정의되며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에 의해 또는 완고하게 따르는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복적 행동 또는 심리내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은 스스로 원하지 않아서 줄이거나 멈추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했으나 고쳐지지 않고 사회적, 직업적 영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발모광은 머리카락이 더럽다고 느껴져서 뽑아내려는 강박장애와는 다릅니다. 꼬불꼬불한 털과 같은 일정 특징이 있는 털, 특정 부위의 털을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뽑으며 심한 경우에는 뽑아낸 털을 씹어 삼키기도 합니다. 털을 삼키는 경우에는 위에서 그 뭉치가 단단하게 굳는 모발위석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증상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무능력과, 탈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저하되어 사회적인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로 사춘기,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아동기에는 이런 행동이 관찰되더라도 일시적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체모를 뽑는 행동 외에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느낄 때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입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은 아동기, 성인초기에 쉽게 관찰되는 행동인데요, 대개 만 18세 이후로는 이러한 행동이 감소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성인기까지 습관으로 남습니다. 가벼운 수준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정신과나 피부과에서도 임상적인 장애로써 크게 주목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에서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손톱물어뜯기는 DSM-5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발모광과 유사하게 강박 관련 장애의 한 종류로 보입니다. 20~3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 데, 대부분의 사례는 미용 상의 문제로 보이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손톱 염증과 세균 감염,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잇몸이나 치아의 손상, 심각하게는 부정교합과 같은 턱관절의 기능 이상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거나 부끄럽게 여겨져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등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상된 삶의 질을 보고하기도 합니다(Pacan, Reich, Grzesiak, & SzEPIETOWSKI, 2014). 이와 관련하여 낮은 자존감과 높은 불안이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Pacan, Grzesiak, Reich, & SzEPIETOWSKI, 2009)도 있습니다.

몇몇 관련 연구(Pacan, Grzesiak, Reich, & SzEPIETOWSKI, 2009)에 의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이 행동은 스트레스나 흥분으로 인한 과도한 자극 혹은 지루함이나 무 활동으로 인한 과소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 시기, 임상적 경과, 그리고 동반이환과 같은 임상적 특징과 특정 약물과 행동적 치료 대한 반응, 그리고 턱 증상과 같은 상동증적 행동이 강박장애 및 강박 관련 장애와 공통됩니다. 또한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환자들에게서 특히 불안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강박장애 척도에서도 높은 점수로 평가됩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면에 의식적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톱을 물기 위하여 하던 활동을 멈추고 행위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이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수록 삶의 질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Pacan, Reich, Grzesiak, & SzEPIETOWSKI, 2014)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체모를 뽑는 행동과 손톱을 깨무는 행동은 주로 탈모나 염증반응을 동반한 문제로써 피부과 진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심리적 요인이 기저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는 증상과, 증상으로 인하여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부끄러워서 숨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고 도와주세요!

김하경 기자_sky_9261@naver.com

참고문헌

APA,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학지사, 2015
 Pacan, P., Grzesiak, M., Reich, A., & SzEPIETOWSKI, J. C. (2009).
 Onychophagia as a spectrum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cta dermato-venereologica, 89(3), 278-280.
 Pacan, P., Reich, A., Grzesiak, M., & SzEPIETOWSKI, J. C. (2014). Onychophagia is associated with impairment of quality of life. Acta dermato-venereologica, 94(6), 703-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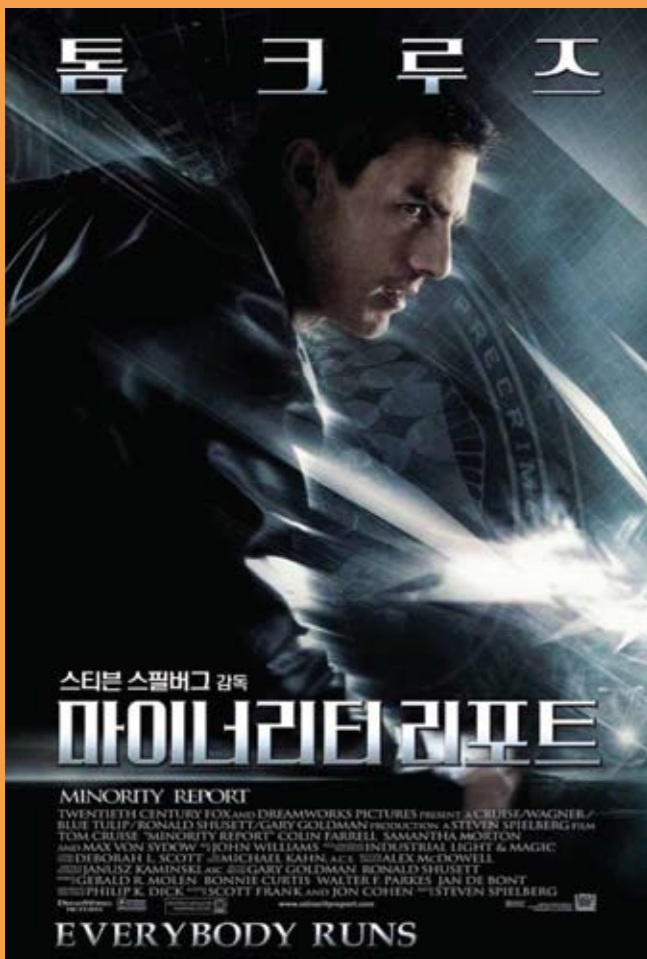
..... Healing의 심리학 여덟 번째 이야기

Minority Report 마이내리티 리포트

마이내리티 리포트 (2002), SF | 2002.07.26 | 145분 | 미국 | 12세 관람가 | 감독_스티븐스필버그

심리학은 과학이다. 역사가 길진 않지만,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왔다. 그리고 심리학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인간 행동의 예측이다. 미래의 심리학은 앞날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마이내리티 리포트>와 함께 심리학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주호 기자_futuredoor70@gmail.com



2054년의 워싱턴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범죄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도시를 이루어 낸다. 치안 당국이 예지자 3명의 뇌파를 이용해 앞으로 일어날 살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지자 3명의 예언을 바탕으로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특수경찰 '프리크라임(Pre-crime)'이 '살인하려는 자'를 체포한다. 이 프리크라임 특수경찰 팀장인 존앤더튼(톰 크루즈)가 '살인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으면서 이야기는 전개된다. 그리고 그는 예측 시스템의 근간인 예지자 3명의 예언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진상파악에 나서게 된다.

시스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마이내리티 리포트>가 보여주는 미래는 심리학이 원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사회다. 하지만 이 같은 완벽한 사회에도 문제는 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앞서 말한 2가지 질문에 대해 좋은 생각 거리를 던져준다.

1

인간행동의 정확한 예측은 가능할까?

주인공 존 앤더튼은 범죄 예측 시스템에 대해 의심하는 감사관에게 공을 굴러 떨어뜨린다. 감사관은 공을 떨어지기 전에 잡는다. 앤더튼은 감사관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공이 땅에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에 당신은 공을 손으로 잡았다.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행동은 정확히 예측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 예측 시스템은 작동한다.' 즉, 인간의 행동은 기계처럼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의 중간에 드러나는 '예언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즉 '마이내리티 리포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지닌다. '앤더튼이 살인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 두 개에 하나의 반대 예언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살인할 확률이 2/3이고 하지 않을 확률이 1/3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을 써서 살인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인간의 미래행동은 이처럼 확률의 문제라면?

2

예측을 기반으로 '예방'을 해도 되는가?

심리학은 인간의 폭력,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와 같이 '과연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두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설사 그 예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재의 인간에게 영화와 같이 체포 등의 수단을 써도 되는 것일까?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들에게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현재의 '예방' 때문에 미래의 예측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짧은 역사이지만 열정적인 심리학자들과 연구들에 힘입어 심리학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행동과 조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심리학은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이고, 예측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위와 같은 질문들도 던져보아야 한다. 우리는 1945년의 원자탄으로부터 반세기 이상 어쩌면 그 이전부터 과학의 부작용을 보아왔다. 심리학도 과학이다. 앞으로 심리학의 발전과 결과는 인간의 삶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지만 그 커다란 혜택만큼 부작용과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심리학의 부작용과 악용을 막을 수 있을지, 위와 같은 '비과학적'인 질문들도 던지고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 번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답을 내려 보는 것은 어떨까?



마음을 위한 보약(補藥)

집단상담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발달단계'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자아정체감 형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 친밀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 또한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업입니다. 상담실을 찾는 많은 학생들이 타인과의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같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 가치관의 혼란, 진로문제와 같이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어려움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소영 기자_sobby44@naver.com



Q 집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집단상담은 비교적 정상범위의 적응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는 상담자 한 두 명과 4-12명의 집단원으로 집단이 구성됩니다.

Q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나요?

A 집단상담의 목표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또한 집단상담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갈등,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학업과 관련된 문제, 발표불안, 낮은 자존감, 진로문제 등 개인의 발달과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집단상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Q 집단상담이란 무엇인가요?

A 집단상담이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이루어가는 상담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집단상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 과정입니다. 즉,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입니다.

Q 집단상담의 장점과 제한점은 무엇인가요?

A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견디기 힘들어 지곤 합니다. 집단상담에서 서로의 생각, 느낌을 공유하다보면 다른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문제를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다른 관점과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는 점도 집단상담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집단상담의 제한점은 먼저 비밀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밀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더라도 구성원 중 누군가 다른 곳에 개인적인 내용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한 개인의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경우라면 집단상담보다 개인 상담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Q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A 집단상담은 무조건적 수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받고 집단원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수용적인 분위기속에서 상담자와 집단원은 서로 문제, 관심거리, 생각, 감정 등을 털어놓으며 각자 자신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집단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감정, 반응양식, 사회적 태도를 탐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집단의 지지와 격려속에서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시험해보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효원심리센터 학생 상담부'에서 매 학기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진로탐색, 발표불안, 스트레스 대처 등 프로그램의 주제도 다양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교내 게시판에 부착된 포스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Old & New

얼마 전 학생회장단 선거가 있었죠? 모두들 2017년 심리학과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단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새 학생회장단 '심 스틸러'를 만나보았습니다.

정은주 기자_wlsdk0805@naver.com

Q. 새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강지환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 학생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A. 저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참 얻은 게 많아요. 대학생활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고, 많은 활동을 통해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친구들도 학생회 활동을 통해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죠. 저는 학생회 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것들을 제 후배들한테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들만을 가진 채 군대를 가고, 조금씩 이런 생각보다는 내 앞길에 대한 생각만을 하고 있을 때 고맙게도 은주가 심리학과 학생회장 후보로 나가는 것이 어땠냐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생각만 했던 바람들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과,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기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와 심리학과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A. 앞선 회장인 은주가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은 심리학과를 만들겠다는 말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적어도 앞선 학생회에 뒤떨어지지는 않아야겠죠. 그리고 새내기와 앞으로 학생회를 할 친구들 입에서 왜 재미있대! 라는 말이 한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후배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고,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로 편하게, 막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Q. 부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15학번 윤기희입니다. 기회는 학생회를 오래 해서, 학생회 활동 중에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지 궁금한데요?

A. 1학년 때 메르스 때문에 농활을 못가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이번년도에 농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고 그래서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농활 배정받은 마을이 일이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덕분에 선배들과 동기들과 후배들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부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학년 때 부터 계속 학생회를 해오면서 동기, 선배, 후배 분들과 함께 과 행사를 진행 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꼭 회장이나 부회장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장님의 권유로 기회를 얻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Q. 이제 새로운 학생회를 꾸리게 될 텐데요, '심 스틸러'는 어떤 학생회가 되었으면 하시나요?

A. 그냥 보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자꾸 볼수록 매력 있고, 창의력 있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어서 결국에는 보는 이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심리학과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회장단이 만들어갈 학생회 '심 스틸러'가 기대가되는 인터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장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16학년도 회장단 '뽀약효과'를 만나보았습니다.

Q. 2016년 학생회장님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심리학과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A. 마지막이라고 하니 굉장히 슬프네요. 제가 회장을 하면서 저는 새내기 때 제가 선배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행사들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행사들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쉬운 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부회장님, 그리고 학생회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좋은 선택들이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1년 동안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계속 뛰어다니는 저를 어여쁘게 봐주시고 행사에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 2016학년도 부학생회장님도 이제 임기를 마치시는데, 심리학과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저에게 심리학과라는 무대 위에서 마음껏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손을 건네준 회장 은주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투표로 그것을 허락해주신 심리학과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학생회를 꾸려나갔던 모든 학생회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친구들이 없었다면 뽀약효과는 불가능했습니다. 믿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교수님, 조교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응원해주 저의 동료들, 선후배님들, 마지막으로 부회장으로서 참 많이 부족한 저의 강점을 살려주고 단점을 메워주었던 훌륭한 리더 정은주 친구에게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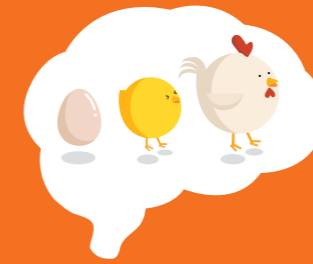
이제 임기가 끝나지만, 앞으로 심리학과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매 순간 즐겁게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세상을 탐구해나가는 심리학과 학생이 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다음 회장과 부회장, 학생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변화에 대한 주저 없음'과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시도는 신중하게 하되, 좋은 기획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후배들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한다면 최고의 학생회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늘 따뜻한 시선으로 2017년 학생회를 바라보고 도움이 필요할 땐 돕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동안 **뽀약효과**를 사랑해주신 많은 **심리학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심스틸러**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2학기 심리학과 학사 및 행사일정



본 행사 이외에도 추가되는 학과 행사나 일정들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심리학과 학생회 심스틸러가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월: 신입생 OT, 가족엠티
- 3월: 개강총회, 신복MT
- 4월: 봄 산행
- 5월: 축제

프시케 스토리 기자단



임상심리실험실 김하경, 상담심리실험실 이소영, 10학번 양현보, 13학번 정은주, 13학번 정진경, 14학번 최숙정, 16학번 이주호

그동안 프시케스토리는 창간호를 시작하여 이번 8호까지 매 학기마다 하나씩 출간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만든 프시케 스토리는 이제 심리학과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와 학과 홈페이지(<http://psy.pusan.ac.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